

Analyst 이광수

02) 3787-2320

koreain@hmcib.com

중동이야기 1) 최근 프로젝트 발주 현황과 단기 전망

- 건설업종, 회복 가능성 여부는 결국 중동에서/ 향후 중동 이야기를 통해 중동 발주시장 점검
- 2013년 현재까지 중동지역 건설발주 1,445억 달러, 하반기 827억 추가 발주되어 26%(YoY) 증가 예상
- 화공, 오일 플랜트 회복 지연으로 한국업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그러나 발전 플랜트 발주 증가 주목

건설업종, 회복 가능성 진단은 중동에서 출발

해외프로젝트 손실 확대로 대형건설회사들의 부진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일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건설회사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듯 대형건설회사들의 기업가치도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형건설회사들의 실적과 주가의 회복(상승)여부는 결국 문제를 발생시켰던 중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향후 중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자료를 통해 건설업종의 회복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최근 MENA 지역 프로젝트 발주 현황 – 회복세, 오일-화공부문은 부진

2013년 8월 현재까지 MENA(Middle East North Africa)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는 1,445억 달러가 발주되었다. 이는 지난해 80% 수준으로 라미단 기간 이후 중동 발주 회복세를 감안하면 올해 발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발주 분야는 교통, 일반 건설 분야이고 **한국 회사들의 주력 분야인 오일, 석유화학 분야는 발주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동지역의 전체 건설 발주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한국 건설회사의 회복은 제한적이었다라는 판단이다.

하반기 MENA지역 827억 추가 발주 – 발전플랜트 건설 투자 증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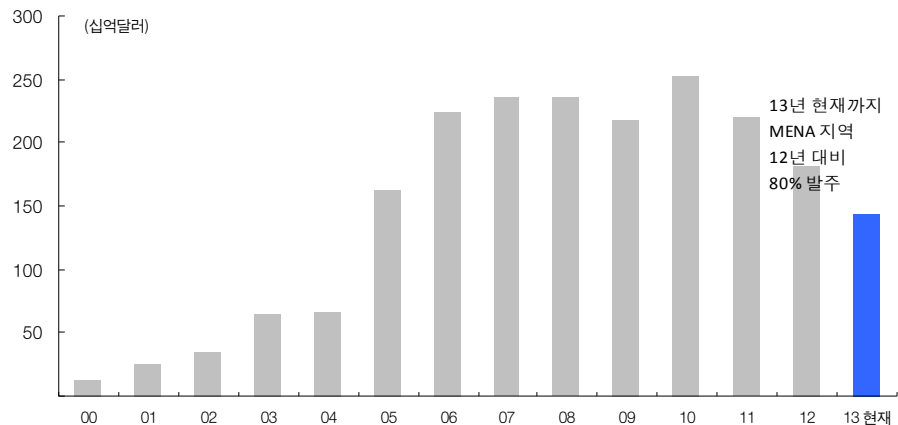
8월 이후 2013년 MENA 지역의 전체 건설 발주는 82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 추정의 근거는 현재 MENA지역에서 발주 후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공사를 취합하여 실제로 비딩 회사가 발표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발주 금액을 조사하였다. **하반기 예상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발주된다면 올해 전체 MENA 지역의 발주는 전체 2,272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6% 증가하여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주력분야인 화학과 오일 플랜트 발주는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건설회사에게 하반기 중동의 발주시장도 회복을 이야기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가지 발전플랜트 투자 증가(하반기 267억 달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업체의 수주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우려 속에 중동에서의 회복 징후를 관심 있게 지켜볼 시점이다.

1. 13년 현재, MENA지역 건설발주 1,445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80% 수준

2013년 8월 현재 MENA (Middle East North Africa)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가 약 1,445억 달러 발주되어 지난해 대비 80%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호한 발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7월 중동 라미단과 9월 이후 발주가 집중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발주는 지난해 규모를 초과하는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MENA지역, 건설발주 지난해 대비 8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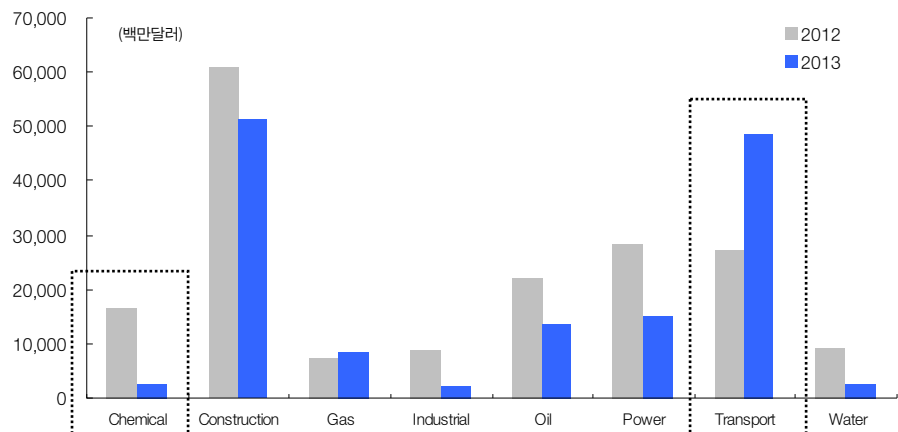


자료: MEED, HMC투자증권

2. 석유화학 발주 부진 속, 교통분야의 발주가 크게 증가

올해 MENA 지역의 발주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교통분야이다. 도로, 철도, 지하철 등의 발주가 증가하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현재까지 교통 분야 전체 발주 금액은 486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 플랜트 해외수주의 주력 분야인 석유화학 분야 발주는 크게 감소하였다. 2013년 현재까지 석유화학 발주 금액은 27억 달러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화학 발주 감소는 원료 부족과 수요 감축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예견된 측면이 있었다.

〈그림2〉 부문별 발주(투자) 규모, 2013년 현재까지 교통분야 증가, 석유화학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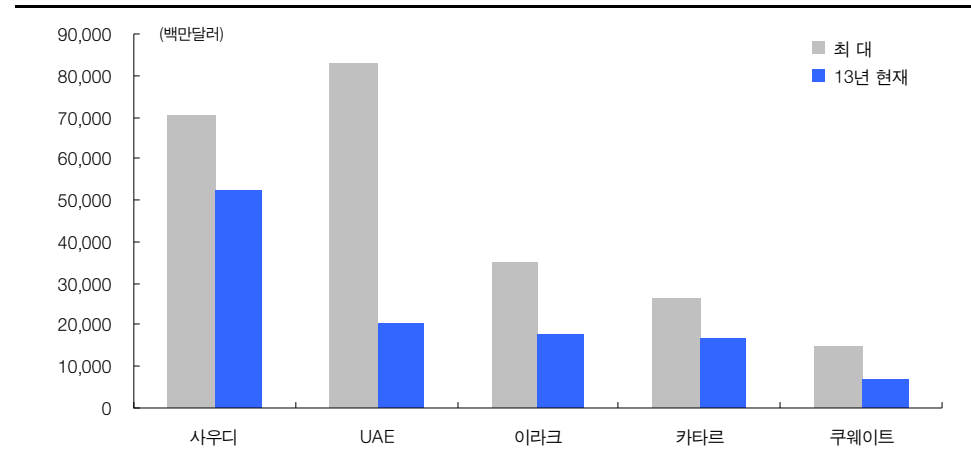


자료: MEED, HMC투자증권

3. 사우디 발주는 안정적인 상황, UAE는 크게 부진

국가별로 올해 발주는 살펴보면 사우디 발주는 건고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UAE, 이라크 등 국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인프라 발주에 나선 국가와 석유화학과 오일분야의 발주에 집중되었던 국가가 차별적인 발주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요 국가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까지 사우디는 525억 달러, UAE 203억 달러, 이라크 180억 달러, 카타르 169억 달러, 쿠웨이트는 65억 달러를 발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 국가별 역대 최대 발주와 2013년 현재 상황 비교



자료: MEED, HMC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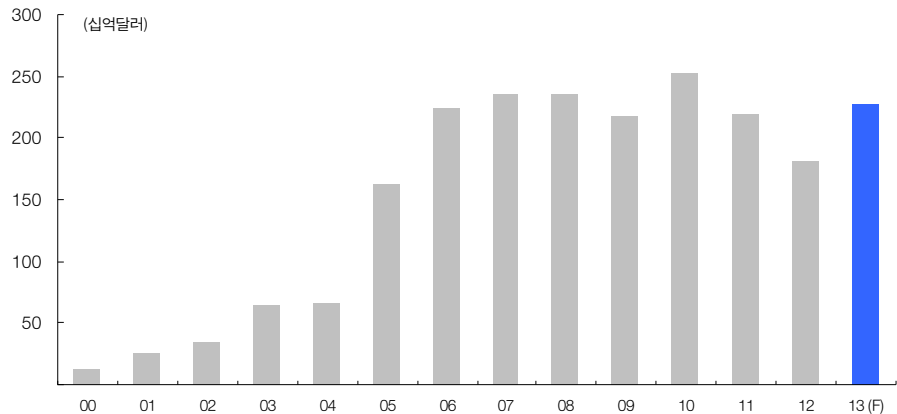
4. 하반기 발주 전망 – MENA 827억 달러 추가 발주

8월 이후 2013년 MENA 지역의 전체 건설 발주는 82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 추정 근거는 현재 MENA 지역에서 발주 후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공사를 선정하여 실제로 비딩 회사가 발표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발주 금액을 조사하였다. 하반기 예상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발주된다면 올해 전체 MENA 지역의 발주는 전체 2,272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6% 증가하여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발주는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교통분야의 발주 강세 속에 일반 건설 분야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 업체가 기다리는 오일과 가스 분야의 발주 증가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오일 분야가 하반기 83억 달러로 하반기 부진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것은 발전 분야의 발주 증가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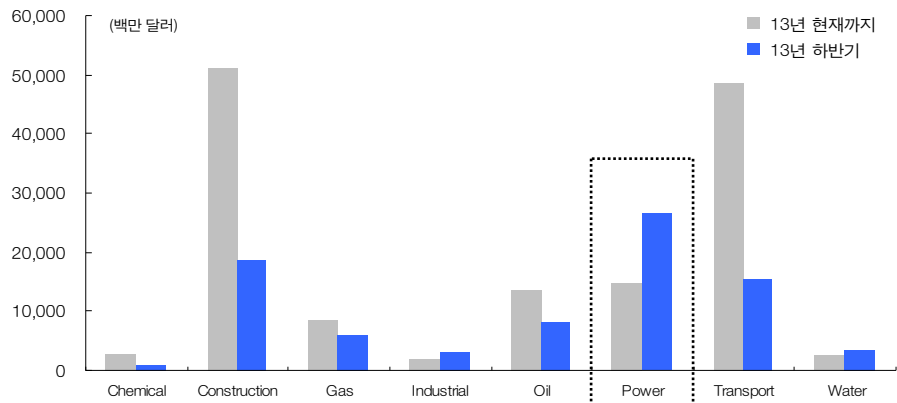
2013년 하반기 발전 분야 발주는 267억 달러로 상반기 현재까지 149억 달러 발주 대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 분야의 발주 증가는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 업체의 수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오일과 석유화학의 발주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황 개선세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4〉 MENA지역, 2013년 예상 프로젝트 발주 규모 2,272억 달러 (YoY 26%증가)



자료: MEED, HMC투자증권

〈그림5〉 2013년 분야별, 현재까지와 하반기 발주 추이



자료: MEED, HMC투자증권

▶ Compliance Note

-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동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투자 의견 분류

- ▶ 업종 투자 의견 분류 HMC투자증권의 업종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 HMC투자증권의 종목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HOLD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